

황금의 나라 미얀마... 불법 가득한 불국토

좋은 차를 사고 딱 일주일,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도 딱 한 달, 고생 끝에 내 집 마련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선함과 설렘이 사라진다고 한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종촌)의 9월 21~26일 템플스테이 운영자 연수회가 개최된 미얀마에서 동행취재를 하며 진정한 행복과 뿌리 깊은 평화를 봤다. 인구 90%가 불교도인 미얀마는 부처님 당시의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 중의 하나다. 아침이면 곳곳에서 탁발 수행을 하는 스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나눔의 실천이 삶인 미얀마인들의 수행문화를 둘러봤다.

21일 9월 21일, 도토리묵 가득 담은 다림쥐 불처림 터져나갈 듯 한 배낭을 짊어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떠났다. 지난밤부터 쏟아지는 가을비에 '비행기가 뜰 수 있으리나' 하는 하찮은 걱정거리부터 군부정권의 폭재정치, 언론탄압, 아동상수치 가택연금, 자연재해 등으로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다.

전국 각지 유명사찰 템플스테이 운영자 스님과 관계자 40여 명이 태운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발을 뗐다. 이륙한지 5분이 지났을까? 세차게 몰아치는 비구름 뚫고 올라온 높은 하늘에는 태양빛이 가득하다. 두려움과 걱정이라는 구름에 쌓여 행복한 출발을 놓친 것 같아 이내 마음을 내려놓았다. 구름을 뛰어넘어 부처님을 따라 '황금의 나라'로 떠나는 이 길이 소중하기만 했다.

홍콩, 방콕을 경유해 10여 시간을 이동해 도착한 양곤 민글라탄 국제공항에 내리자 한국의 열대야 같은 더위가 밀려왔다. 마음을 내려놓으려 가는 여행길이 바로 미얀마 여행길이었다. 양곤 시내로 들어가는 길 곳곳에 보이는 파고다가 눈에 띄었다. 붉은 색 승복을 입고 우산을 들고 있는 스님도 보였다. 무소유의 삶을 산다는 이들의 수행의 삶이 궁금해졌다.

22일 #세계 불교 3대 유적지 바간(Bagan) 한반도 면적의 3.5배(67만8528km)에 달하는 미얀마를 둘러보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모든 일정은 새벽부터 시작했다. 첫 답사지인 바간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여를 이동해야 했다. 바간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유적과 함께 세계 3대 불교유적지로 한국의 경주와 같은 곳이었다. 11~13세기 '400만 파고다의 도시' 바간에는 현재 2227개의 파고다들과 유적들이 남아 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재래시장이었다. 도시 전체가 유적지지만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맛이라. 우리들 처음으로 반긴 것은 작고 마른 어린 아이들의 큰 눈망울이었다. 한번 마주치면 거기가 빠져나오질 못하고 만다. 더러 얼굴에 '타나카(Thanaka: 미얀마 특산물 천연화장품으로 대부분의 미얀마인들은 얼굴에 이것을 발라 피부를 보호한다)'를 발라주고는



미얀마 만달레이에 위치한 마하간다용 수도원에서 스님들이 공양을 하기위해 줄을 서있다.

미얀마식 사원 정장 '맨발' ... 천년전 수행터 남아 "갖고자 할 때 보다 주고자 할 때 더 없이 행복해"

물건을 팔기 시작한다. 이들이 그 유명한 '원달라(1\$) 부대'다. 미얀마 특유의 향신료와 젓갈 냄새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틈을 타 '원달라 부대'는 나를 기습공격했다. 그리고 보니 내 주머니에서 달리는 훌쩍 빠지고, 내 손에는 이것저것이 매달려 있었다. 특별한 생의 감각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황금모래 언덕의 파고다'라는 뜻을 지닌 쉐지공 파고다(Shwezigon Pagoda). 사암(砂岩)으로 만들어져 금옷을 입은 쉐지공파고다는 부처님의 전두뼈와 모조 치아사리가 안치된 곳으로 미얀마 파고다의 원형이다. 한국 법당에는 '양발을 신고 들어오세요'라며 맨발을 엄격히 금하지만 미얀마 사원에는 '맨발로 들어오세요'라며 양발, 스타킹 어떤 것도 신어선 안 된다. 유치원생 아이들도 관광객들에게 맨발로 다녀야 한다는 것을 알려줄 만큼 사원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맨발로 들어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 정장 차림'이다. 정장차림을 하고 들어간 황금색 쉐지공 파고다는 태양빛을 반사해 눈을 뜨고 보기 힘들었다. 첫 답사지에서 한국 방문단은 가사장삼에 맨발로 첫 예불을 올렸다.

잔짓따 우민(Kyanzitha Umin)은 인공 동굴 안에 지어진 파고다로 스님들의 수행처였다. 한 낮에도 칠흙같은 어둠이 있는 이곳은 천년 전 스님들의 수행처였다니 그 어는 탐보다 신성하게만 느껴졌다.

틸로몬로(Htilomonlo)파고다, 마누하(Mhanuha)사원, 부(Bu)파고다, 아난다(Ananda)파고다 등 일행은 수많은 부처님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1000년 전, 불심으로 세워진 수천 좌의 탑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쉐다곤(Shwesandaw)파고다에 올랐다. 가파른 경사의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수천 개의 탑들이 수면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구름하나 없



템플스테이 운영에 실무를 담당하는 전국 30여 스님이 참가했다. 22일 양곤 아난다파고다에서 찍은 단체사진.



양곤 쉐다곤파고다 경내에 봉안된 불상들.

는 바간 평지에 세워진 불탑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을 때, 탑 주변에 산다는 어린 아이들이 내 발걸음과 귀를 흘려갔다. '원달라 부대'는 정말이지 지독했다. 하지만 마음을 돌려본다. '부처님 금머리카락'이라는 높은 탑에서 이들을 만나기까지 나와 너는 얼마나 오랜 인연의 세월을 보냈을까. 인연이 있어야만 올 수 있다는 신비의 땅에서 널 만났으니 부처님께 감사할 뿐이다.

23일 #종교·문화 중심 마하간다용 수도원 바간에서 비행기를 타고 20여 분 떨어진 만달레이에는 2500여 년 전 부처님과 아난존자가

다녀간 문화·종교의 중심지다.

바간과는 달리 만달레이 곳곳에서는 수행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길에는 연령대별로 스님들이 줄지어 탁발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탁발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미얀마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지만 탁발스님에게 보시를 해 공덕을 쌓아 더 나은 내세를 기원한다. 보시는 삶이 돼 갖고자 할 때보다 주고자 할 때 더없이 행복한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미얀마인들의 삶의 모습과 풍경이었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을 찾았다. 1914년 설립된 마하간다용 수도원을 순례한 뒤 탁발공양을 참관했다. 10시 15분이 되자 긴 쇠줄을 나무 막대로 내려준다. 아침 9~10시 탁발해온 공양을 함께 먹는 것이다. 잠시 간에 1300여 스님들이 공양간 앞으로 모여들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스님들의 일상뿐만 아니라 행동들이 놀랍기만 하다. 한국으로 치면 유치원생부터 전 연령대가 다 모여 있는 이곳이 어쩌면 이리도 조용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공양을 드실 때에도 스님들은 단 한마디 하지 않는다. 공양물을 조용히 드시고는 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신다. 그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됐건 간에 불평불만하지 않고 조용히 먹을 뿐이다. 어묵등정이 한결같은 수행자 모습이었다.

이곳은 관광객이 공양하는 모습을 참관하는 것을 완전히 개방하고 있다. 이날 마하간다용 수도원에는 평소보다 400여 명 가량이 적은 1300여 스님이 머물고 있었다. 그동안 배운 빨리 경전 점검기간으로 많은 스님이 시험을 보기 위해 출타중이었다. 미얀마 불교는 부처의 가르침을 충실히 전수하는 권위있는 장로들의 전통 혹은 교설에 충실한 상좌부 불교(Teravada)로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하다. 12시 대중과 함께 공양하는 시간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이후로는 입으로 씹는 음식은 먹지 못한다. 우에인도바다 비원파 방장 스님은 일행과 차담 시간이 약속돼 있었으나 대중과 함께하는 공양시간을 지키는 철저함을 보였다.

이와외다경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민군경변에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現場風水

현장풍수

명혈에 대한 간평 수록!

풍수지리 안내서! 풍수지리의 근본사상은 승조표현사상이다. 어떤 종교를 믿던 간에 먼저 자기 조상을 숭배해야 된다고 말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한 풍수지리에 대해 소개한다. 심혈순서, 음양오행론, 나경총론, 용법론, 각종시법론, 혈장총론 등이론을 정리하였으며, 명혈에 대한 간평을 실어 수록했다.

제1장 심혈 순서
제2장 음양오행론
제3장 나경총론
제4장 용법론
제5장 각종 시법론
제6장 혈장총론
제7장 수법론
제8장 발복추산법
제9장 본신론의 특성과 물형론

朴奉柱 著

신국양정본 / 528쪽 / 값 25,000원

입금계좌 기업은행 041-055985-02-010
예금주: 문해성

전화: 02)354-8646
팩스: 02)384-8644

www.법왕정사.kr

수행도우미

기분좋은 환희심나는 체험으로 수행생활의 기쁨을 누리세요

발로 해 (특수기능성 양말)

신는순간 따뜻해진 발, 노랑겨나 칼라진 끈은살, 보들보들, 보송보송 피곤할 때 느끼는 발뒤꿈치, 발목이름 즉시 해소 (절할때, 성지순례, 운전)

스트레칭 필

줄수행, 잠잘때 착용하면 어깨 결리고, 시리고, 뻐뻐함, 오십견과 스트레스 순간해소

청명고요(수행방석)

배에 힘이 모아져 안정된 자세와 집중력, 또렷함 유지 수염상, 고시생, 컴퓨터, 운전할때 졸음 피로 완전 해소

오락오락엔티, 와신삼매요, 보석언꽃면티, 금강저조끼, 기도포, 팔관애원(손목, 무릎보호대), 칼라차크라, 배오온대, 다보명차, 아마다차

서울법당 (02) 456-0035 부산법당(051) 583-7886
대구법당(053) 743-0063 광주법당(062) 375-3500

www.법왕정사.kr

이 연 공 고

- 사찰명: 연화사 / 법명: 송운 松雲 (허남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의관리
- 사찰명: 성불사 / 법명: 송죽 松竹 (박세근)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 사찰명: 성불사 / 법명: 송인 松仁 (이한란)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 사찰명: 용평사 / 법명: 송연 松然 (김진구)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수암리
- 사찰명: 관음사 / 법명: 송암 松巖 (김해규)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 사찰명: 청량사 / 법명: 송운 松允 (허운지)
• 주 소: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 사찰명: 명불사 / 법명: 송춘 松春 (주금옥)
• 주 소: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상기 승려는 소납의 제자였으나 이제는 사제간의 인연이 다하였다고 생각되어 사제간의 인연을 끊고자 이에 공고합니다.

불기 2553(2009)년 10월 1일

한국불교 치악산 대성암 주지 각화 범룡

불보살님의 원력으로 치유합니다

암,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신장, 아토피, 기미, 검버섯 그리고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 방문하셔서 상담하십시오.

경남 합천군 대명면 장단리 산 67
청강사 혜 광 합장

문의 055)932-5706